

디스플레이 설비투자 28조원 투입

LCD 8세대 증설에 11세대 신설 ... AM-OLED 패널에 OLED 조명 개발

2013년까지 디스플레이 산업에 총 28조5000억원의 설비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1월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생산라인 증설 등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디스플레이협회는 2010년 최소 8조2000억원, 2013년까지 모두 28조5000억원의 설비투자 계획을 보고했으며,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LCD(Liquid Crystal Display) 8세대 생산라인 증설과 최첨단 11세대 신규라인 투자 계획, 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과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조명에 대한 선제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또 초고선명, 3D(3차원), 초대형 LCD 패널 기술개발과 고부가가치 혁신제품의 개발동향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장관은 LCD 패널의 중국 투자진출 건의와 관련해 “진출의 불가피성은 있지만 공급과잉과 국내 투자 저하,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이전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국내 고도화 투자 확대와 핵심기술 보호방안, 장비 소재 생산기업의 진출기회 제공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03>